

구례에 27홀 골프장 들어선다

군-피아웬니스-삼미건설 협약
산동면 일대 사업비 1천억 투입
침체된 온천지구 활성화 기대

구례군은 최근 ㈜피아웬니스, ㈜삼미건설과 ‘구례온천CC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구례 산동 온천지구 활성화를 위한 ‘구례온천CC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약으로, 군은 산동면 관산리 일대 150만㎡ 부지에 27홀 규모의 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약 1,000억 원 규모다.

㈜피아웬니스는 사업시행자로서 기획, 설계, 각종 인·허가, 자금 조달 및 집행 등 사업 전반을 총괄하고, ㈜삼미건설은 시공회사로서 시공 및 책임 준공 업무를 수행한다. 구례군은 사업 인·허가 지원 등 행정절차 이행을 적극 지원한다.



구례군은 최근 ㈜피아웬니스, ㈜삼미건설과 ‘구례온천CC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구례군 제공

김순호 군수는 “산수유와 온천 등 천혜의 자원을 보유한 산동면에 조성된 골프장은 지리산정원, 구례수목원 등 인근 관광 자원과 연계해 더욱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며 “침체된 산동 온천지구를 살려서 체류형 관광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민선 8기 구례군은 치유산업 선도도시와 체류형 관광도시로 도약을 위해 대규모 사업

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 전남도, 아이쿱생협연합회와 함양 농식품 제조 공장 및 치유 병원 건립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산동면 일원에 2,170억 원을 투자해 함양 농식품 제조 공장

과 치유 병원, 휴양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또한, 오산 케이볼카를 핵심으로 2,000억 원 규모의 오산권역 관광레저 클러스터 조성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구례=손석봉 기자

장흥, ‘100세 건강시대’ 맞춤형 보건사업 추진

신체활동지원센터 확대 운영

장흥군이 10대 중점 협력사업 중 보건의료를 선제해 생애 전주기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한다.

군은 코로나로 중단됐던 보건소 기능을 회복하고 100세 시대를 대비한 건강정책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 건강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푸른장흥 건강대학 19기를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푸른장흥건강대학은 지역의 대표적인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이다. 경로당 운동지도자 40명은 경로당 88개소에서 지역사회 건강매니저로 활동한다.

청년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신체활동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한다. 직장인 건강일터프로그램, 탄진장 걷기 프로그램 추진을 통한 자세교정, 비만예방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전문 흡연 예방 교육을 실시해 흡연 성공률을 향상할 방침이다.

영·유아 건강한 삶의 시작에 적극 투자를 하여 저출산 극복에도 노력한다. 전년도 장흥군은 임신부와 영아 가정을 대상으로 전문적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생애초기 건강관



김성 장흥군수가 푸른장흥건강대학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장흥군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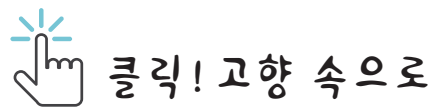
리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올해는 영양, 금연, 구강 관련 인형극, 건강한 식생활 형성을 위한 요리실습, 우드랜드 등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아토피사업, 예방접종사업 등을 적극 추진한다. 건강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여 군민의 건강수준 격차를 해소할 예정이다.

만성질환자 관리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건강 생활실천 환경을 조성

한다.

복지관 장애인 대상자별 건강보건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군민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고, 치매환자와 그 가족까지 안심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치매안심도시 조성을 위한 치매사업도 확대 추진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우울증과 스트레스가 증가했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데이터를 토대로 마음치유센터, 정신건강증진사업을 강화한다. /장흥=이옥현 기자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농산물 나눔

고흥군은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청년교육생들이 직접 재배, 수확한 200만원 상당의 토마토, 멜론 등 농산물 340kg을 전달하며, 이웃을 위한 나눔행사를 추진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모집·선발된 전남 3기 교육생들은 1,500평 규모의 보육온실에서 직접 생산한 토마토 160kg, 멜론·딸기 180kg을 관내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들에게 전달해,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동시에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응원했다.

나눔 행사에 참여한 한 보육생은 “스마트팜 청년보육 사업을 통해 직접 농산물을 길러볼 기회를 갖고, 나눔을 통한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는 등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고흥=진중연 기자



문주현 엠디엠그룹 회장, 3억2천만원 기부

문주현 엠디엠그룹 회장이 최근 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에 3억 2,000만원의 기부금의사를 밝혔다.

장학금은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4년에 걸쳐 연 8,000만원씩 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올해 기탁된 장학금 8,000만원은 문주장학생 전형으로 상반기와 하반기 각 20명 학생에게 200만원씩 지급

할 예정이다.

문 회장은 이날 장흥군에 고향사랑 기부금 500만원도 함께 전달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문주현 회장은 장흥군 관산을 출신으로 평소 애郷심이 깊어 군민 의료봉사, 장학금 지원 등 사회 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여 왔다. /장흥=이옥현 기자



순천, ‘동네의원-마음이음’ 사업 확대

순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관내 정신건강 고위험군 조기 발견, 중증화 지연을 위해 2023년 ‘동네의원·마음이음’ 사업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동네의원-마음이음’은 내과, 가정의학과 등 동네의원 이용자 중 정신과적(우울, 자살 충동 등)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를 발견하면 초기에

적절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보제공, 순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사업이다.

현재 시는 순천시의사회를 비롯해 총 143개소를 지정, 지역 의원들의 높은 참여 속 순환하고 있다. 참여를 원하는 의원은 순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해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순천=박경석 기자

사업 ▲청년 역량교육 사업 등 6개 교육사업 등에 178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청년의 역할과 요구가 커지는 추세에 맞춰 ▲미디어 창작공간 조성 ▲청년 창업농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젊음의 거리 조성 ▲청년 농업인 대학 운영 신규사업을 추가했으며, ▲청년취업 교육기관 운영과 ▲청년 주택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청년들이 활력 있게 일하고 가정을 꾸리는 것,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시의 주요 현안이자 기성세대의 역할”이라며 “청년정책의 발굴과 함께 다양한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우성진 기자

보성, 김형우 한반도문화연구원장 초청 포럼

보성군은 최근 김형우 한반도문화관광연구원 원장을 초청해 제359회 보성 자치포럼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시대 이후 ‘보성 관광산업의 전망과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김 원장은 보성 관광산업의 전망과 발전 방향에 대해 강연했다.

특히, 김형우 한반도문화관광연구원장은 변화하는 관광산업의 환경에 적응하는 법과 관광객 유도를 위한 특제시장 공략 방법 등의 중·장기적 관광 활성화 전략을 설명했다.

아울러 외국인 인센티브 제도, 다국어 지도 제작, 사전 답사 여행(뽕투어) 등을 통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 방안과 녹차밭을 활용한 핵심 콘텐츠, 보성의 갯벌과 바다, 특산물 등을 이용한 관광상품 개발을 제안했다.

김 원장은 “관광은 경기 활성화를 불러일으

키고 개인의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주는 영역으로 소비자 욕구를 잘 파악해 특색 있는 관광지로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지역 대표 랜드마크를 활용한 홍보 마케팅과 관광객이 머무를 수 있는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이번 자치포럼은 보성군만의 매력적인 관광 자원을 바탕으로 관광 시장의 혁신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한 귀중한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도 보성군의 관광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글로벌 관광 시장을 선도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형우 원장은 관광산업 전문가로 한양대 국제관광대학원 겸임 교수, 경희대 관광대학원 겸임 교수,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자문 위원과 보성군 홍보대사 등을 맡고 있다. /보성=백종두 기자

여수, 환경경영체제 국제표준 인증 갱신

여수시가 최근 국제표준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 인증 갱신으로 22번째 인증을 유지하면서 환경친화적 도시로서 위치를 굳건히 했다.

28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3일 동안 이뤄진 환경행정 전반에 대한 국제표준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 인증을 취득했다.

‘ISO 14001’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환경경영시스템 국제규격으로 환경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운영되고 있음을 인증해주는 제도다.

시는 2002년 최초로 ISO인증을 획득한 후 3년마다 갱신 심사를 받아 왔으며, 올해로 22년간 국제 표준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인증 심사에서는 환경보호, 공원녹지관리, 상·하수도 관리, 수질환경관리, 오동도관리, 매립장관리 등 8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행정 업무가 평가됐다.

이번 인증 획득에 따라 시는 1회 이상 사후평가를 받게 되며, 3년 후인 2026년에 다시 갱신 심사를 받게 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ISO 14001 인증 유지는 단순한 환경 행정이나 시민 중심의 ‘환경 친화적 도시 여수’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여수시의 발전을 위해 시민의 쾌적한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여수=곽재영 기자